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도의 관계

김 영 기[†]

단국대학교

한 성 열

고려대학교

한 민

서울대학교

부부의 성만족도는 결혼생활 및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부부간의 성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으로서 평소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성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부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지역(원주)에 거주하는 부부 688명(344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높은 수준의 감정을 노출하는 고정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부의 성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부인이 개방적이고 높은 수준의 감정을 노출하는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부의 성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남편이 의사소통에 적극적일 수록 부부의 성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부, 성만족도, 결혼만족, 상호작용, 의사소통 유형

[†] 교신저자 : 김영기,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E-mail : kmento@korea.ac.kr

현대의 가정은 한 가족 안에서 부부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이러한 애정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수단인 성생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시되고 있다(김임영, 2002).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성(stability)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satisfaction)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8).

부부간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들 중에서도 성만족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윤가현, 1998). 성 만족이란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상호관계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이다(고정애, 2004). 성생활은 육체적 이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감정의 교환, 따뜻한 느낌을 제공한다. 따라서 만족한 성생활과 행복한 결혼생활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이영실, 1989; 이홍식, 1987). Marokoff와 Gilliland(1993)는 기혼자들에게 성 생활의 만족이 결혼생활의 만족과 직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Donnelly(1993)는 부부간의 성 생활 부재는 별거나 이혼의 가능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성 만족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성생활의 결핍이나 불만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가 욕구불만이나 우울증, 불안, 불면증,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Stack & Gundlach, 1992).

이근후(1999)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성생활은 결혼생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이라고 본 사람이 45.2%를 차지했으며, ‘90% 이상’도 38.7%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10명중 8명이 결혼에서 성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응답한 것이

다. 또한 이윤수(1998)의 조사연구에서도 부부간 성생활이 결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생활이 결혼생활의 질과 부부의 적응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부의 성은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관계적 기능, 성생활을 통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는 바로미터(barometer)의 기능, 그리고 부부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Means, 2000). 그러므로 성생활의 만족, 불만족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부부 두 사람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가정 내의 안정이나 평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부부간에 성 만족에 대한 이야기나 요구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윤가현, 1998). 또한 부자중심의 가족관계를 근간으로 포괄성, 연속성, 서열성, 비성욕성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다(장성숙, 2006). 또한 우회적이고 중의적인 한국의 전통적 의사소통 방식(나은영, 민경환, 1998)도 부부간의 성 표현을 제한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부부관계에서 성 만족의 중요성은 이제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적 전통이 퇴색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삶을 표방하는 현대인의 실생활에서는 이미 성 만족의 중요성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성생활의 만족

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큼에도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중에서도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부족하며 국내 자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대략 살펴보면 대개 부인 일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기혼여성의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김진영, 2005)를 다루거나 여성의 관계에서의 자율지향성(홍숙선, 2001), 성관련 의사소통(고정애, 2004)이 성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의 성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임신부들의 성생활 만족에 대한 연구들(김윤미, 1996; 방영희, 2001; 양희란 1993) 및, 자궁절제술이나 정관수술 등 성기관 수술 이후의 성만족도에 관한 연구들(김용옥, 1991; 양혜주, 1997) 등 제한된 대상과 시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서선영, 2001)이나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김임영, 2002) 등과 같이 결혼생활의 특정주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부의 성만족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부 혹은 신혼과 같은 특정 시기의 부부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김효현, 1996; 문혜숙, 1993).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이든, 성만족도이든 부부관계가 역동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부부의 결혼생활, 특히 성적 만족은

남편과 아내라는 두 개인이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므로 부부를 한 단위로 보고 두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부부간의 문제는 한 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의 상호작용을 상호 역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에는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성행동 연구(김영기, 한성열, 한민, 2008; 손영미, 김효창, 2009)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기 등 (2008)은 자존감 수준이 성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손영미와 김효창(2009)은 부부의 성행위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크립트로 간주하고 부부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성적자기탐색능력, 성적자기인식, 성신념과 성생활 갈등해결 능력이 성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의 성만족도를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소수이며, 특히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성만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요완(2000)의 연구가 유일하지만 이는 의사소통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부부의 상호작용이 성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의 상호역동 중에서도, 특히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이 성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 의사소통과 성 만족도

부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특히 문제해결시에 나누는 의사소통은 결혼만족에 직결된다(이정은, 이영호, 2000; 임승락, 권정혜, 1998). 황민혜와 고재홍

(2010)은 부부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에 주목하고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갈등의 해결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성생활에 있어서도 부부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성생활 갈등을 해결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한다. 성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따라 성적만족도와 부부관계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홍성목, 2000; Conrad & Milburn, 2001).

Landis(1975)는 성생활 만족의 상태란 성교 횟수나 성행위 빈도라기보다는 부부간에 서로의 욕구가 잘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보았다. 만족스러운 성관계는 부부의 적응과 관계가 깊고, 성적으로 만족하면 부부갈등이 감소되며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표현과 이해는 성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는 보편적인 듯하다(이영실, 1989). 부부간의 성생활은 상호간의 존경과 사랑의 심도를 더해주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성생활은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생활 만족의 문제는 배우자와의 인간관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Derogatis, 1980).

Kaplan(1990)은 부부간의 정서적 갈등, 힘의 대결, 부적절한 의사소통, 신뢰감 부족 등이 성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였으며, 실제 임상연구를 통해 갈등적 관계를 가진 부부에게서 성욕구의 감소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Perlman과 Abramson(1982)은 배우자간의 인간관계의 질은 성 만족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Bell과 Bell(1972)은 성행위에서 상대방과의 친밀성, 하나 됨을 느끼는 것을 성 만족이라고 하였다. 문혜숙(1994)도 결혼관

계에서 성생활은 두 사람간의 감정적, 인격적 표현이며, 서로간의 사랑과 존경, 관심과 인간성 및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하여 부부들은 일체감, 상호 감사, 긴장 완화, 사랑의 표현, 합의, 기분전환 등의 효과를 얻는다 하였다.

즉 성관계는 대표적인 부부의 소통이라 할 수 있으며 성만족은 그러한 소통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이 부부의 성 관계 및 성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성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성 관계는 혼자 하는 관계가 아니며 부부가 함께 신체를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성 관계를 단순한 신체접촉이라는 협의적 매개로 하는 개념을 넘어서, 분위기 조성-전회(상호수용)-삽입관계-후회 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으로 파악할 때, 성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부부는 이런 성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전달되고 정서적 교감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게 된다(Brentton, 1994).

부부 의사소통 유형

부부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소통과 정서적 소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Hawkins, Ray, & Weisberg(1980). 부부의 정서상태는 성 만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간의 정서는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송성자, 정문자, 1998). 특히 언어, 즉 대화를 통한 자기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친밀한 정서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Brommel & Galvin, 1996). 자기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Jourard(1971)는 이상적인 결혼관계를 “각 배우자가

숨기지 않고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Littlejohn(1983)은 자기개방에 대해서 1) 노출이 증가하면서 관계의 친밀감도 커지고, 2) 노출은 상호적인 경향이 있으며 3) 부정적인 노출은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보다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는 연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Gilbert(1976)는 자기개방과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하여 연구한 후, 적당한 정도의 노출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Jorgensen과 Gandy(1980)가 12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로에게 성공적으로 자기를 개방하는 부부들은 결혼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만족도를 보인 부부들은 개방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즉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터놓고 교환하는 것은 물론 공포, 문제점, 자기불신, 분노와 우울감, 일방 또는 쌍방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는 것이 배우자 상호간의 행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정서적인 소통 역시 부부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dams(1980)는 감정의 부정적인 표출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Marshall, Krupinski, 그리고 Yule(1970)은 문제 부부들은 감정 표현의 부족과 불일치에 대해 큰 불만족을 갖는다고 했다. Gottman과 Porterfield(1981)는 남편이 그의 아내의 감정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 결혼만족이 높다고 하였으며, Hansen과 Schuldt(1984)는 감정 노출이 둘 다 높은 부부가 결혼생활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그 다음이 감정 노출의 양이 불일치하는 부부, 마지막으로 감정

노출이 둘 다 낮은 부부가 만족이 가장 낮은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언어 표현과 감정 표현에 있어 개방적인 부부가 성만족이나 결혼생활 전반에서 높은 만족을 느끼고, 높은 질의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awkins, Weisberg, 그리고 Ray(1980)는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을 사실에 대한 언어화의 정도와 정서적 감정 표출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우선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서는 폐쇄적인 형태와 개방적인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폐쇄적 형태는 자신이나 상대방이 외적으로 경험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나 내적인 생각과 감정에 관해서 언어적으로 거의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그 사실 자체를 무시하기도 한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내외적인 경험과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관점을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 표출 정도에 따라서는 감정 표출의 정도가 낮은 상태와 높은 상태로 구분되는데, 감정표출 정도가 낮은 것은 상대의 감정이나 의도, 행동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감정 표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강하게 몰입해 있음을 나타내며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감정, 언어표현이 높은 친숙형(contactful style), 감정 표현은 낮고 언어 표현은 높은 분석형(speculative style), 감정표현은 높지만 언어 표현은 낮은 억제형(controlling style), 감정, 언어 표현이 모두 낮은 차단형(conventional style)으로 나눌 수 있다(김인숙, 1988; 이정순, 1991).

이상에 언급한 의사소통 유형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친숙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에 대해 명백히 언어적으로 표현하며 정서적으로 강한 몰입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나) 분석형은 내적인 신념과 사고에 관해서 명백하고 자발적으로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자발적으로 취하고자 한다.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거의 몰입하지 않아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 표출이 낮은 유형이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즐겨하고 타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지만, 즉 일반화된 사실이나 사건 등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나 기분 등의 정서에 대한 노출은 꺼려하는 유형이다.

다) 억제형은 비언어적으로는 감정의 상태가 고조되었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지만 객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유형이다. 즉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언어적인 표현으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꺼려하는 유형이다.

라) 차단형은 문제를 피하거나 둘러댐으로써 그에 대한 명백한 언어적 표현을 하려하지 않으며 감정 노출이 적어서 정서적 몰입의 상태를 거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자기를 개방하기 꺼려하고 피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의 의사소통 유형이다(Hawkins, Weisberg, & Ray,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wkins 등(1977)의 의사소통 유형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부부의 성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 의사소통 유형 중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부부의 성만족도를 알아본다.
2. 부부 의사소통 유형 중 언어표현 정도에 따른 부부의 성적만족도를 알아본다.
3. 부부의 성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유형의 패턴을 알아본다.

방 법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지역(원주)에 거주하는 부부조사 대상자 1500명(750쌍)의 설문 중에서 회수되지 않은 760부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공백이 많은 설문 52부 등 총 812부를 제외한 688부(344쌍)의 설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령의 범위는 30대 이하가 34.6%, 40대가 48%, 50대 이상이 17.4%였고, 결혼기간은 5년 이하가 17.4%, 6년에서 10년 이하가 19.8%, 11년에서 20년 이하가 45.3%, 20년 이상이 17.4%였다.

결혼 전 교제 기간은 1년 이하가 47.1%, 2년 이하가 19.8%, 3년 이하가 16.2%, 3년 이상이 17.2%였으며, 결혼형태는 연애결혼이 63.5%, 중매가 21.9%, 기타가 14.6%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1명을 둔 부부가 18.5%, 2명이 60.2%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이상이 45%, 자녀가 없는 부부도 8.1%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은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교사, 서비

스 및 전문직 등으로 다양하였다.

조사 절차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배부, 수거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93일 동안이었고 설문지의 회수율은 45.8%이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으며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송용 봉투에 연구자의 주소와 이름을 기입하였다.

측정 도구

의사소통유형 척도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Hawkins 등 (1977, 1980)이 개발한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6개의 질문을 기초로 원효종(1984)이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후 김인숙 (1988) 등의 논문에서 사용된 부부 의사소통 유형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10개의 질문 아래 친숙형, 분석형, 억제형, 차단형을 대표하는 4개의 보기가 나열되어 있다. 보기는 김요완(2000)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응답자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각 질문마다 다르게 배열되었다.

문항 예시) 때때로 집안일이나 자녀들의 일로 걱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시나요?

- 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 ②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 ③ 걱정스럽거나 불안한 표정을 보이지 않

으며, 주로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④ 무척 걱정스러워하면서 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 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의사소통 유형의 분석을 위해서, 10문항에서 의사소통 유형을 대표하는 4가지 보기 중 4이상의 높은 빈도의 유형을 각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빈도가 10을 초과할 수 없고, 빈도가 4미만을 기록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는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설문을 결과처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남편 .81, 부인 .82로 나타났다.

성만족도 척도

성 만족 정도 측정을 위해 Derogatis 성 기능 척도(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이하 DSFI)를 장순복(1989)의 연구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DSFI의 제 10부 성 만족에 관한 문항 11개를 강희선, 김숙남, 장순복(1988), 장순복(1989), 이민식(1988) 등의 연구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DSFI 원본에서는 Yes 혹은 NO의 2점 척도의 설문이였지만 김요완(2000)이 연구의 세밀성을 기하기 위해 Likert type의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으며, 마지막 11번째의 질문은 자신의 성 만족을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하는 문항으로서 최악의 상태(0점)에서부터 최상의 상태(8점)까지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남편은 Cronbach α = .79, 아내는 Cronbach α = .81 이었다.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paired t-test,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중다회귀분석을,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결 과

부부의 성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부부의 의사소

통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를 부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편과 부인의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 부부의 학력, 결혼기간, 결혼 전 교제기간, 자녀의 수, 가족의 수입, 부부간 대화시간 등 7가지의 변인과 성 만족도와의 관계를 중다회귀(enter)를 통해서 알아보았다(표 1).

그 결과, 부인의 학력과 대화시간이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길수록 부부의 성만족도는 높아진다

표 1. 성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β	t	adjusted R ²	F
남편 성만족도	결혼기간	-.005	-.077	.051	3.618***
	교제기간	-.045	-.840		
	자녀수	.098	1.492		
	수입	.035	.634		
	남편학력	-.047	-.735		
	부인학력	.121	1.668†		
	대화시간	.246	4.564***		
부인 성만족도	결혼기간	.044	.632	.040	3.024***
	교제기간	-.034	-.642		
	자녀수	.087	1.314		
	수입	-.024	-.428		
	남편학력	-.087	-1.348		
	부인학력	.231	3.175**		
	대화시간	.186	3.434***		

† p<.10, ** p<.01, *** p<.001

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대, 종교 및 결혼형태(연애결혼 여부)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 의사소통유형의 차이와 성 만족도와와의 관계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

먼저 Hawkins 등(1977)의 기준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였다(표 2). 이를 바탕으로 실제 부부 쌍들의 조합 가능한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3에 제

시하였다.

그 결과, 남 친숙+여 친숙, 남 분석+여 친숙, 남 억제+여 친숙, 남 차단+여 친숙의 4개 집단은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사례수는 1~12쌍 정도로 적었다. 따라서 모든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사례수가 차이분석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Hawkins (1977)가 의사소통 유형 구분에 사용한 기준, 즉 언어적 표현 정도와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서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형(친숙+분석)’과 ‘폐쇄형(억제+차단)’, 그리고 ‘고 감정형(친숙+억제)’과 ‘저 감정형(분석+차단)’으로 구분하고 성만족도를 비교하였다.

표 2.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

구 분	남편 (N=321)		부인 (N=329)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친숙형	158	49.2	249	75.7
분석형	63	19.6	27	8.2
억제형	52	16.2	36	10.9
차단형	48	15.0	17	5.2

표 3. 부부 쌍에 대한 의사소통 유형 (N=307)

구 분	사례수	백분율(%)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남 친숙 + 여 친숙	122	39.7	남 억제 + 여 친숙	31	10.1
남 친숙 + 여 분석	12	3.9	남 억제 + 여 분석	5	1.6
남 친숙 + 여 억제	11	3.6	남 억제 + 여 억제	10	3.3
남 친숙 + 여 차단	7	2.3	남 억제 + 여 차단	2	.7
남 분석 + 여 친숙	50	16.3	남 차단 + 여 친숙	29	9.4
남 분석 + 여 분석	6	2.0	남 차단 + 여 분석	4	1.3
남 분석 + 여 억제	4	1.3	남 차단 + 여 억제	8	2.6
남 분석 + 여 차단	1	.3	남 차단 + 여 차단	5	1.6

언어적 표현정도에 따른 성만족도

언어적 표현정도(개방 vs 폐쇄)에 따른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집단으로 나눈 결과(표 4), 남편과 아내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 즉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이나 '분석'인 경우인 집단이 190쌍으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개방형이지만 남편은 폐쇄형인 집단이 69쌍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남편은 개방형, 아내는 폐쇄형인 경우와 남편과 아내가 모두 폐쇄형인 경우는 각각 23쌍, 25쌍으로 적었다.

표 4와 같이 구분된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부를 쌍으로 할 때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부부의 성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를 분석해본 것이다(표 5).

표 4. 언어적 표현정도로 분류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 (N=307)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남 개방 + 여 개방	190	61.9
남 개방 + 여 폐쇄	23	7.5
남 폐쇄 + 여 개방	69	22.5
남 폐쇄 + 여 폐쇄	25	8.1

표 5에 따르면, 남성의 성만족도는 남편이 개방형인 집단(남개방여개방, 남개방여폐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고($F=6.245$, $p<.001$), 여성의 성만족도는 여성이 개방형인 집단(남개방여개방, 남폐쇄여개방)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남편과 부인 둘 다 폐쇄형인 집단은, 남성은 개방형이지만 여성은 폐쇄형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F=10.585$, $p<.001$).

언어표현 정도로 구분한 세부 유형별 부부 성만족도 차이

각 유형의 부부에 대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편과 부인이 모두 개방형인 집단($n=190$)은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나($t=-.032$, $p=.974$), 남편의 성만족도와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r=.58$ ($p<.001$)로 높게 나타났다.

남편은 개방형이지만 부인이 폐쇄형인 집단($n=23$)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남편>부인; $t=2.285$, $p<.05$)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고($r=.201$, $p=.359$), 남편은 폐쇄형이고 부인이 개방형인 집단($n=69$)에서는

표 5.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분석(언어표현 정도)

구 분	남개방여개방	남개방여폐쇄	남폐쇄여개방	남폐쇄여폐쇄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190	23	69	25		
남편성만족도	3.46 ^a (.49)	3.35 ^{ab} (.34)	3.23 ^b (.46)	3.15 ^b (.52)	3.38 (.49)	6.245***
부인성만족도	3.46 ^a (.50)	3.05 ^b (.60)	3.35 ^{ab} (.53)	2.96 ^c (.45)	3.37 (.53)	10.585***

*** $p<.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a>b>c$,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성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남편<부인; $t=-2.035$, $p<.05$),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의 관계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r=.50$, $p<.001$). 마지막으로 남편과 부인이 모두 폐쇄형인 집단($n=25$)에서는 성만족도는 약한 차이가 있었고(남편>부인; $t=1.848$, $p<.10$),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에서도 정적 상관($r=.456$, $p<.05$)이 나타났다.

감정노출정도에 따른 성만족도

감정노출의 정도(고 감정 vs 저 감정)에 따른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집단으로 나눈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높은 수준의 감정을 노출하는, 즉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이나 ‘억제’인 경우인 집단이 174쌍으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고감정형이지만 남편은 저감정형인 집단이

91쌍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남편은 고감정형, 아내는 저감정형인 경우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저감정형인 경우는 각각 26쌍, 16쌍으로 적었다(표 6).

표 6과 같이 구분된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에 따르면, 남편의 성만족도는 남편과 부인 모두 고정서형인 집단이 남편이 저정서형이고 부인이 고정서형인 집단 및 남편과 부인 모두 저정서형인 집단보다 높았고($F=5.998$, $p<.001$), 부인의 성만족도는 남편과 부인 모두 고정서형인 집단과 모두 저정서형인 집단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591$, $p<.01$).

감정노출 정도로 구분한 세부 유형별 부부 성만족도 차이

각 유형의 부부에 대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편과 부인이 모두 고정서형인 집단($n=174$)은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나($t=.411$, $p=.682$), 남편의 성만족도와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r=.52$ ($p<.001$)로 높게 나타났다.

남편은 고정서형이지만 부인이 저정서형인 집단($n=26$)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에

표 6. 감정노출정도로 분류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 (N=307)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남 고감정 + 여 고감정	174	56.7
남 고감정 + 여 저감정	26	8.5
남 저감정 + 여 고감정	91	29.6
남 저감정 + 여 저감정	16	5.2

표 7.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분석(감정노출 정도)

구 분	남고여고	남고여저	남저여고	남저여저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174	26	91	16		
남편성만족도	3.47 ^a (.51)	3.40 ^{ab} (.37)	3.23 ^b (.46)	3.18 ^b (.31)	3.38 (.49)	5.998***
부인성만족도	3.45 ^a (.54)	3.32 ^{ab} (.68)	3.28 ^{ab} (.43)	3.01 ^b (.50)	3.37 (.53)	4.951**

** $p<.01$, *** $p<.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t=.662, p=.514$)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495, p<.10$), 남편은 저정서형이고 부인이 고정서형인 집단($n=69$)에서도 성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t=-1.148, p=.254$),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56, p<.001$).

마지막으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저정서형인 집단($n=25$)에서는 성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t=1.511, p=.152$),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에서는 정적 상관($r=.456, p<.10$)이 나타났다.

실제 자료에 근거한 대표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부부 성만족도 차이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부부의 성만족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실제 자료에 근거해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나누고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16개의 집단 중, 남 친숙+여 친숙($n=122$), 남 분석+여 친숙($n=50$), 남 억제+여 친숙($n=31$), 남 차단+여 친숙($n=29$) 등의 네 개 집단의 사례수가 특히 많았는데 이들 집단들은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과 관계없이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모두 친숙이라는 공통점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한 부부의 67%에 해당하는 이들 집단이 실제 상당수의 부부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인 네 집단과 나머지 12개 집단의 부부 성만족도를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으로 비교하였다(표 8).

표 8.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인 집단과 그 외 집단의 차이

	부인 친숙 ($N=232$)		부인 친숙 아님 ($N=75$)		<i>F</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 성만족도	3.40	.50	3.29	.41	3.065†
부인 성만족도	3.42	.50	3.17	.57	13.792***

† $p<.10$, *** $p<.001$

표 9. 부인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인 부부 중 남편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

구 분	친숙	분석	억제	차단	평균 (표준편차)	<i>F</i>
사례수	122	50	31	29		
남편성만족도	3.51 ^a (.52)	3.35 ^{ab} (.42)	3.35 ^{ab} (.48)	3.09 ^b (.43)	3.40 (.50)	6.378***
부인성만족도	3.52 (.53)	3.36 (.41)	3.34 (.55)	3.29 (.44)	3.43 (.50)	3.061*

* $p<.05$, *** $p<.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그 결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인 경우의 부부 성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성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인 네 집단에 대해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9).

표 9에 따르면, 남편의 성만족도는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인 경우 차단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숙과 분석·억제, 차단과 분석·억제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부인의 성만족도는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부인이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경우, 특히 개방적이고 높은 수준의 감정을 노출하는 의사소통을 할수록 성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남편이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수록 부부의 성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부부는 현대가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가족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되어야 하며, 부부가 가정의 핵심에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정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과거 세대에서는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지 못했고 변방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가정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정보다는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의 축이 옮겨져 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대 가정의 추세는 이전까지는 덮어두거나 감추려고 했던 부부간의 성 만족에 대한 표현도 달라지게 하였다. 즉 이전과는 달리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좌우하는 요소로 성적 만족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더 이상 부부간의 성 만족도는 부부만의 은밀한 비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행복과 결혼 만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부부의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나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좌우할 요소 중 하나인 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해답을 구하는 가정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 만족도를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도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각자 개별이 아닌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부부간의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고 하였다. 부부는 역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를 다룰 때는 남편과 부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를 한 단위로 하여 부부의 성 만족과 관련 변인들을 연구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개인특성 및 부부간의 상호작용 요인인 의사소통 유형이 부부 상호간의 성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른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유형을 언어적 표현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고 남편과 부인의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부인이 모두 개방형

인 집단이 성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다른 경우에 부부 각각이 지각하는 성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편이 개방형이고 부인이 폐쇄형인 경우에는 남편의 성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이 폐쇄형이고 부인이 개방형인 경우에는 부인의 성만족도가 높았고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 사이의 관계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우선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수록 성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언어적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보다 성만족도가 높다는 김요완(2000)의 연구 결과, 부부가 서로 성생활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친밀감을 얻게 된다는 이해진(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남편이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부인이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남편의 성만족도는 부인의 성만족도와 관련이 가지지 못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남편이 폐쇄형, 부인이 개방형)는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가 정적관계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가 함께 만족하는 성생활을 위해서는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의사소통 유형을 감정의 노출정도에 따라 고정서형과 저정서형으로 구분하고 남편과 부인의 유형에 따른 성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부인이 모두 고정서형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부부 각각의 성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정서형 의사소통을 하면 부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성만족도가 높았으나, 부인의 경

우에는 자신이 고정서형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남편의 유형이 저정서형이라면 남편이 고정서형일 때보다 성만족도가 낮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성만족을 위해서는 특히 남편이 높은 수준의 감정을 노출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가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에서 드러난 부부들의 실제 의사소통 유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형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형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보다 남편의 성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형인 경우가 성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보다도 부인의 친숙형 의사소통이 부부 양쪽의 성만족도와 관련이 깊으며, 남편의 의사소통 노력 여하에 따라 부부가 모두 만족하는 성생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부인의 학력이 부부 모두의 성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력이 높은 부인들의 성에 대한 표현이 낮은 부인들에 비해 자유롭고(개방적 의사소통) 그것이 남편과 자신의 성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시간 역시 성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방형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남편, 부인 등 개별적인 연구가 아닌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조사함으로써 성행동과 관련한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부부는 홀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만족도와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부부에 관한 연구는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조사하

는 것이 부부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훨씬 심도 깊은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연구자들이 잘 알고는 있지만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연구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행되지 못했었다.

실제로 부부 연구에 있어서 부부를 한 단위로 하여 나온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적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가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부부의 성만족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한 몸 되어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부가 느끼는 행복과 질적 만족도는 홀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보다는 부부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특히나 부부간의 성 만족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부의 성 만족도는 더더욱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이라는 것이 자유스럽게 표현되지 못하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고 이는 부부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부부의 성까지도 은밀한 곳에서만 표현되거나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주고받으며 지내왔고 부부끼리도 자유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불만을 담고 살아왔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부부의 친밀성을 깊게 하는데 중요한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약을 가져왔다. 즉 부부를 함께 한 단위로 하여 연구하려 하여도 대상자들이 거절하고 꺼려하여 실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에 필요한 통계적인 대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서 부부의 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성만족도의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의의를 갖는다.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한 연구, 특히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김요완(2000)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김요완의 연구에서는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남편과 부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부부를 한 단위로 놓고 개방/폐쇄, 고정서/저정서 형의 네 가지로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부부 각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성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를 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성만족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경기, 서울, 강원일부지방에 한정되었지만 344쌍(688명)이라는 비교적 유의미한 통계를 측정할 수 있는 숫자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부를 한 단위로 한 연구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실제 부부를 함께 조사하는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례수를 모아 의미 있는 통계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나름대로 300쌍이 넘는 부부를 사례수로 모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수는 본 연구가 채택한 모든 의사소통 유형(Hawkins et al., 1977)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으며(표 3),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유형분

석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충분한 사례수가 담보된다면 부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성만족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한 표본들의 정직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도 성 만족도라는 질문이 편안하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들만의 속생활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사생활 침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윤가현, 1998) 응답에 있어 부정직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간에 실제 느끼는 성 만족도보다 좋은 쪽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부부에게 따로 배부하고 회수한 것이 아니고 부부 중 한 쪽에게 설문지를 부탁하고 받은 것이기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설문지를 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응답하였기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부를 한 쌍으로 묶어서 한 연구임에도 부부가 각자 지각한 성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만 했을 뿐 부부가 교차하여 상대의 성 만족을 알아보는 부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부부가 서로 교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체크해본다면 자신의 지각에만 의존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 배우자의 시각과 관점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보다 정확하며 풍성한 부부관계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포함한 보다 통합적이고 세밀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선, 김숙남, 장순복 (1998).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대한 간호학회지, 28(1), 201-209.
- 고정애 (2004). 기혼여성의 성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관련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논문집.
- 김동석 (1988). 정관수술 수용자군과 비수용자군의 성기능 및 성만족도 비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기, 한성열, 한민 (2008). 부부의 자존감 수준과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03-119.
-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지식 수준의 성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옥 (1991). 자궁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성생활 변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미 (1996). 임부의 성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 재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임영 (2002).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옥, 박경규, 박순희, 안영희, 구향숙, 한동희, 전형미, 류도희, 박영숙, 이은경, 이현혜, 정복희, 김성희 (1996). 결혼과 가족. 서울: 학지사.

- 김진영 (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현 (1996).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도시의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문혜숙 (1994).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숙, 신혜숙, 이은희, 장순복 (1999). 현대여성의 건강생활. 서울: 학지사.
- 방영희 (2001). 임신부부의 성태도와 성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선영 (2001).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영미, 김효창 (2009).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2), 241-267.
- 송성자, 정문자 (1998).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양혜주 (1997). 혈액투석환자와 신이식 환자의 삶의 질과 성생활 만족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희란 (1993). 임신 부인의 성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가현 (1998). 성 문화와 심리. 서울 : 학지사.
- 윤진, 오경자, 이훈구, 정찬섭, 최정훈, 한종철 (1993).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 서울: 범우사.
- 원효중 (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근후 (1999). 가족해체와 부부간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학술대회.
- 이민식 (1988). Derogatis 성 기능 검사의 표준화 예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실 (1989). 도시 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수 (1998). 한국 여성의 성의식 및 성실태. 한국성의학연구소.
- 이정순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홍식 (1987). 완전한 부부: 전문의가 쓴 알기 쉽고 완벽한 성의학 백과. 서울: 오늘.
- 이혜진 (2004). 기혼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성기능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승락, 권정혜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19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09-124.
- 장성숙 (2006). 한국문화에서의 부부상담: 현실역동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특), 117-131.
- 장순복 (1989).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숙선 (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 및 자
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성목 (2000). 사랑은 진할수록 아름답다. 서울:
명진출판.
- 황민혜, 고재홍 (2010).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
이, 오해 및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79-800.
- Adams, B. N. (1980). *The family*(3r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dge Publishing Company
- Bell, R. B. & Bell, P. L. (1972).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an.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6, 136-144
- Brentton, M. (1994). 성 커뮤니케이션 소프트
[Sex communication soft]. (이민섭 역). 서울:
한이름. (원전은 1991년에 출판)
- Brommel, B. J. & Galvin. (1991). 의사소통과 가
족관계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이재연, 최영희 역). 서울: 형설출
판사.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Conrad, H. & Milburn, M. (2001). *Sexual
Intelligence*. NY: Three Rivers Press.
- Derogatis, L. 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113-131.
- Donnelly, D. (1993). Sexually inactive marriages.
Journal of Sex Research, 30, 171-179.
- Gilbert, S. (1976) *Empirical and theoretical extentions
of self-disclosure. exploration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Gerald Miller, (E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7-215
- Gottman, J. M., Porterfield, A. L. (1981).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nonverbal
and the family, (vol. 43), 818.
- Hansen, J. E, Schuldt, W. J. (1984). Marital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923.
- Hawkins, J. L, Weisberg, C, & Ray D. L (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Hawkins, J. L, Weisberg, C, & Ray D. L (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85-593.
- Jorgensenm, S R, & Gandy, J. C (1980)
Self-disclosure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
The relation examuned Family Relations, 29,
281-288.
- Jourard, S. (1971). *Some lethal aspects of the male
role. Men and masculinity*. Joseph Pleck and
Jack Sawyer,(Ed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1-29
- Kaplan, H. S. (1990). 새로운 성치료 [The new
sex therapy]. (박영숙, 성금영, 이근후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82년에 출판)
- Landis. J. T., & M. G. Landis (1968).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U. S. A. 275-301
- Littlejohn, S. (1983).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Columbus, OH :Charles Merrill.
- Marokoff, P, & Gilliland, R (1993).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 Marshall, E., Krupinski, J., & Yule, V. (1970).
Patterns of marital problemes in marriage
guidance cli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138-143
- Means (2000). *An intergrative approach to what really
want Sexual satisfaction*. University of Detroit
Mercy.
- Perlman, S. D.M., & Abramson, P. R.(1982).

-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individuals.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3), 459-460.
- Satir, V. (1991). 사람 만들기 [*People making*]. (성문선 역). 서울: 홍익제. (원전은 1972년에 출판).
- Stack, S, & Gundlach, J. (1992). Divorce and sex. *American Sexual Behavior*, 21, 359-367.
- 논문 투고일 : 2011. 01. 17
1 차 심사일 : 2011. 03. 22
2 차 심사일 : 2011. 05. 04
게재 확정일 : 2011. 05. 24

The Relations between Types of Communication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Sexual Satisfaction

Youngki Kim

Dankook University

Seongyul Han

Korea University

Min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exual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s marriage life satisfaction. And the sexual intercourse is considered as a physical and emotional communication which is related with the type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But, former researches had conducted on the husbands or wives separately, the interactions of married couples could not be considered sufficiently. So, the purpose of present research is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the type of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in the perspective of married couples' interactions. 344 married couples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and data of 344 married couples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he type of married couple's communication is related with their sexu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Especially, the more wives communicate actively, the more sexual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s is increased.

Key words : sexual satisfaction, types of communication, interaction, married couple